

경허·만공·금오·월산 스님 부도탑 한자리에

21일 청계사에서 제막식

근세 한국선불교의 중흥자인 경허 스님의 법맥을 이은 만공·금오·월산 스님의 부도탑이 경허 스님 출가본사인 청계사에서 나란히 모셔졌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는 3월 21일 절 입구에 조성한 부도밭에서 경허·만공·금오·월산 스님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락(前 용주사 주지), 성태(불국사 회주), 종상(불국사 주지), 청계사 회주, 지명(前 법주사 주지), 법정(수덕사 주지), 도공(법주사 주지), 정오(용주사 주지), 장주(포항 오사 주지), 종광(경주 기림사 주지), 자승(조계종 총무 부장), 도진(조계종 호법 부장), 법달(또한 보경사 주지), 덕민(불국사 승가 대학장) 스님과 순학규 경기도지사,

김문수·전재희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등 정관계 인사들을 비롯해 500여 사 부대중이 참석, 큰스님들의 유훈을 기렸다.

1부 법요식은 월성 스님(북천암 주지)의 축원으로 시작돼 성행 스님의 사일경과보고, 정오 스님의 경묘 사순으로 이어졌다.

또 순학규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부도 조성에 공이 큰 금속공예가 최광웅씨, 서예가 이규찬씨 등에게 감사패와 공로패가 수여됐다.

행장소개에서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은 “부도탑 제막을 계기로 청계사에서 한국 선불교의 정맥을 면면히 잇는 성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한다”며 네 분 스님들의 오도송을 각각 염송했다. 순학규 경기도지사는 추모사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서 마음의 때를 씻듯 큰스님들



3월21일 의왕 청계사에서 열린 경허·만공·금오·월산 스님 부도탑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큰스님들의 유훈을 기리고 있다.

의 부도 앞에서 마음의 평온을 얻기를 바란다”며 “청계사가 앞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평화를 심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법요식을 통해 부처님께 부도탑 건립을 알린 사부대중은 부도밭에서 네 분 스님들의 부도탑과 비, 청계사 사적비의 천을 벗기는 제막식을 진행했다.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비문에 적힌 네 분 스님의 행장은 열반하신 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

롯해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 前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 불국사 회주 성태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이 직접 짓고 쓰신 것”이라고 말했다.

청계사는 2003년 7월 ‘한국 선종 흥분절’ 로서의 면모를 일신키 위해 부도전 재정비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10월 개토식을 거행한 이래 2년 간 준비해왔으며 연면적 280평 규모다.

글·사진/의왕-이은희 기자

템플스테이 참가자 4년새 20배

지난해 5만 2500여명 체형

지난해 조계종 사찰 템플스테이에는 총 5만2504명이 참가해 3만 6902명이 참가한 2004년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 불교문화체험 수요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고)은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06년도 상반기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지난해 템플스테이 현황을 공개했다.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사업 첫해였던 2002년 2558명, 2003년 1567명, 2004년 3만6902명에 이어, 지난해 5만2504명이 참가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인사(5637명), 갑사(5618명), 금굴사(3409명) 등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내국인 4만5887명,

외국인 6617명이 참가했다. 또 매주 목요일 운영하는 봉은사 템플라이프에는 2146명의 외국인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템플스테이 참가자 16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도 공개됐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주 연령은 30대(29.1%), 20대(23.0%), 40대(21.6%)로 젊은층이 주를 이뤘다. 학력은 대학재학 또는 졸업자가 57.7%로 가장 많았다. 또 서울(31.3%), 경남(19.6), 경기(18.0)에서 참가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았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만족 51.4%, 매우만족 34.0%)는 상당히 높았으며, 프로그램 가운데는 스님과의 대화(26.8%), 참선(22.5%)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조용수 기자

저출산·고령화 학술포럼 4월 13일 역사문화기념관

조계종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불교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스님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4월 1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1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 연구원의 ‘고령화·저출산 사회이행에 따른 제도화 흐름 모색’과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고재욱 관장의 ‘고령화·저출산 사회 제도화 방안과 불교사회복지 대응방안’ 주제발표가 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2008년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합제도를 앞둔 관련 시설 실무자들을 위해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김취연 부장이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실무’ 특강을 펼친다.

이은비 기자

한국불교박물관 열려

불교계 최초의 불교문화상품 박물관인 2006 한국불교박물관이 3월 23일 개막식을 개최하고 서울무역전시관(SETEC) 전관에서 나흘간의 대장정을 펼쳤다.

130여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박물관 개막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스님, 총지종 총무원장 우승 정사, 진각종 문사부장 행정 전수, 원효종 문화부장 석주 스님, 김익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익석 대한불교청년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지연 기자

北 묘향산 보현사서 동국대 100주년 법회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건학100주년을 맞아 3월 17일 묘향산 보현사에서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조선불교도연맹의 초청으로 이뤄진 법회에서 동국대 흥가삼 총장은 고분문을 통해 “이제 우리는 새로 맞는 100년을 시작하면서 당신의 가르침이 모든 중생에게 두루 미쳐 소중한 생명이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맑은 마음과 어진 행동을 일깨워 교육에 전념할 것”을 서원했다.

이사장 현해 스님은 기념법어에서 “우리 남북 부처님 제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땅을 부처님의 정토로 만들어가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고 설법했다. 법회에는 평불협 회장 법다 스님, 보현사 주지 청운 스님, 조불연 심상진 부위원장, 정서정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진홍원, 2006 신행개혁 청정운동 전개

부처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 불자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1995년 시작된 신행개혁운동인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청정운동’이 새롭게 펼쳐진다.

(재)대한불교진홍원(이사장 홍승희)은 3월 29일(수) 오전 11시 조계사에서 열리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대구(5월), 부산(6월), 광주(9월), 전주(10월), 서울(11월)에서 전국

순회법회를 여는 등 2006년도 청정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실천적 구호를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되는 이번 순회법회는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근간으로 8개의 구체적 실천지침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할 예정이다. 8개항의 실천 덕목은 공경하기, 청정하기, 베풀기, 참회하기, 기쁨주기, 경건읽기, 거스르지 않기, 회

향(廻向)하기 등이다.

또 불자 개개인이 매일 확인하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신행수첩(68쪽, 3만부)과 차량용 흥보스티커(3만매)를 제작, 배포해 ‘나부터’ ‘지금부터’라는 의식을 모든 불자들의 마음속에 새겨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불교진홍원은 1995년 추진 계획을 수립해 1998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속초, 경주, 논산 등 전국 10여개 지역을 순회하며 강연을 통해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실천행사, 결사대의, 신행단체대표자연수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문의 (02) 719-2606 김원우 기자



희귀병 앓는 형준이 돕기 능인사회복지관 나섰다

지역 복지관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던 한 난치병 어린이를 발견하고 후원모금에 나섰다.

올해 다섯 살 형준이는 언제 낫을지 터질지 몰라 외출도 마음대로 못한다. 형준이는 심장판막증에 더해 ‘간 문맥혈관기형’이라는, 우리 나라에서 딱 두 명만 갖고 있는 것

로 확인된 병을 앓고 있다.

형준이의 부모는 강남구의 빈민촌인 포이동 266번지 판자촌에 거주하고 있다. 과일행상을 하는 아버지 박종묵(42)씨는, 한 달 수입 60만원으로 형준이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급기야 돈을 빌렸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지만 과일트럭을 갖

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도 제외돼 최근까지도 지원금을 전혀 못 받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포이동에 위치한 능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등)에서 이 사실을 알고 형준이를 위한 후원모금을 시작했다. 지역신문에 소개된 이야기가 읽고 3월 8일 복지관 직원들이 형준이 집을 방문해,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다. (02)571-2988 신용협동조합 01324-12-006737(예금주: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이은비 기자

분노의 축제 ‘새만금의 봄’

전국서 1000여명 집결 “갯벌을 살려다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3월 19일 새만금 방조제 입구에서 총집결의 날 ‘새만금의 봄’ 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실상사 작은학교 등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등지에서 1000여명이 참가했다.

새만금국민회의 공동대표 오영숙 수녀가 눈물의 인사말로 ‘새만금의 봄’의 막을 곁었다. 두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새만금

간척공사를 멈춰달라는 호소는 ‘배는 바다로 가고살다’는 플래카드를 내건 배가 등장하는 퍼포먼스에서 절정에 달했다. 뱃노래를 타고 배가 방조제 입구를 향해 나아가면서 참가자들과 경찬이 총들었다. 한시간여에 걸쳐 몸싸움을 벌이던 양측은 부상자 없이 한발 물러섰다.

참가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새만금을 노래했다. 분노의 축제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버스안, 모두의 표정은 어두웠다. 불교환경연대 지도위원 현각 스

님은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일깨우는 그날까지 희망을 놓지말자”며 처진 어깨를 다독였다.

부안-박봉영 기자

황우석 연구재개 촉구 교수모임 발족

현직 교수와 강사들로 구성된 황우석팀 연구재개 촉구 교수모임이 3월 18일 발족했다.

모임에는 고준환(경대), 김용표(동국대), 이태영(중앙승가대), 설인찬(대전대), 조성길(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교수모임은 앞으로 인터넷 카페(cafe.daum.net/nicewoosuk)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시국강연회 개최 등 황우석 교수팀 연구재개를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통영시민의 휴식처이자 청정수행도량인 미륵산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거룩한 삼보에 귀의하옵고,

제방에서 수행정진에 힘쓰시는 큰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수행자는 산이나 숲으로 갔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도 출가를 입산수행이라 합니다. 산은 병든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치유하고 자성을 찾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이 피로할 때 치유하는 방법 중 하나는 먼 산 먼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갖가지 현대식 구조물로 뒤덮여 훼손된 산을 바라보거나 오를 때는 마음의 안식은커녕 되레 혼란을 가중합니다. 근래 산중 고찰에서 템플스테이가 유행하는 것은 현대 문명의 이기와 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산중이 도심처럼 번모한다던 지친 현대인의 휴식 공간은 물론 출가 수행자들에게 최소한의 수행터마저 빼앗아 갈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통영 미륵산 식도(케이블카)설치는 지난 2002년 중앙총회에서 이미 반대 결의를 했고 총무원 역시 강력

한 의지를 갖고 미륵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숭선수범해 산지를 지키지는 못할 지언정 개발에 앞장 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민에게 물질적 가치보다는 심미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동적이고 유희적인 놀이보다는 마음을 고르는 정적인 휴식을 선양토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큰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

통영시 남쪽, 미륵도 중앙에 우뚝 솟은 위풍당당한 미륵산! 당대 강림하실 미륵부처님이 용화회상을 펼칠 불국토라 하여 이름 지은 미륵산 용화사! 이곳에 거대한 철 구조물을 세워, 황금만능주의를 숭배하는 산으로 전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울창한 산림사이로 맑은 계곡이 흐르며 한려해상의 다도해를 품고 있는 미륵산을 훼손하는 것은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훼손하는 것이며 후손의 희망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청정수행도량 미륵산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나무마하반아바라밀 나무마하반아바라밀 나무마하반아바라밀

불기2550(2006)년 3월 24일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공동대표 보선 혜자 세영 임완숙, 집행위원장 진원 외 회원일동